

“작곡 의도·연주자 해석따라 악기도 달라져야”

20일·27일 월요콘서트 ‘원더풀 바로크 20’ 해설 서상중씨

50여점 원전피아노 소장 고악기 전문가

고악기 알면 피아노 발달사 조망 가능

시대별 변천사 담긴 피아노 박물관 건립 꿈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바로크 고음악 시리즈’가 인기를 얻는 가운데 바로크 시대 당시 사용했던 악기로 직접 연주하는 고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지난 13일에 이어 20일, 27일 3번에 걸쳐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진행되는 월요콘서트 ‘원더풀 바로크 20’은 서상중(65)씨의 해설로 고음악·고악기를 더욱 알기 쉽게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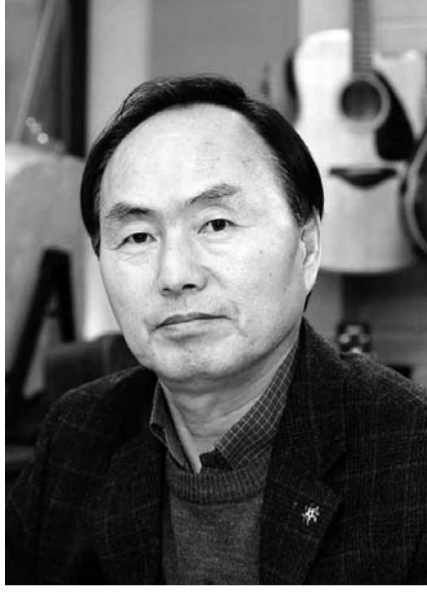
46년 동안 피아노 조율사이자 제작자로 살아온 서씨는 지난 2011년부터 원전 피아노를 수집해 온 고악기 전문가다. 서울 예술의전당에 있는 자신의 공방에 50여점의 원전피아노를 소장하고 있는 그는 우리나라 최대 고악기 수집가 중 한명이다.

이번 공연에서 서씨는 ‘영국식 메커니즘’으로 제작돼 쇼팽, 베토벤 등이 사용했던 ‘에라르 포르테 피아노’와 ‘비엔나 메커니즘’으로 제작돼 모차르트가 주로 활용한 ‘안드레아스 슈타인’ 피아노를 제공했다. 14일 진행된 전화 인터뷰에서 그는 고악기가 가진 매력 등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포르테 피아노(고악기) 피아노 포르테(현대 피아노)는 구조, 원리, 소리와 주법이 많이 다릅니다. 모던 피아노는 88개 건반으로 7옥타브까지 표현하지만, 지난 콘서트에서 보여드린 모차르트 곡을 연주한 ‘안드레아스 슈타인’ 피아노는 음역대가 5옥타브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모차르트가 현대 피아노의 풍성한 소리를 노리고 곡을 만들었을까요? 작곡 의도, 연주자의 해석에 따라 곡을 연주할 악기도 달라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고악기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나 볼 법한 원전 피아노를 활용하는 공연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서씨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음악회에서조차 곡에 알맞은 고악기를 구하지 못해 곤란했던 적도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고악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악기를 알면 피아노의 발달사를 알 수 있다”며 고악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예로부터 음악가들은 자기 음악을 표현할 악기를 찾기 위해 테크니션과 상담하고, 직접 쳐보고, 연구했습니다. 고악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 발달해 온 피아노 구조



와 원리의 변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건에 맞춰 발달해 온 음악사가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죠.”

서씨가 고악기를 수집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05년 한국 조율사 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시아연맹 조율사 협회, 국제 조율사 협회 등을 통해 해외 기술자들과 교류하던 서씨는 유럽 등지에서 고악기 제작·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

또 지난 2006년부터 12년에 걸쳐 강원대학교에서 피아노 구조와 조율법을 가르치던 때 우리나라에서 고악기를 제공하는 곳이 없어 교육이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국내 수요가 많지 않은 고악기를 수집하게 된 이유는 그 때문이었다.

“특별히 수요가 있어서 수집하는 게 아

니고, 판매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만으로 모으고 있어요. 유럽에선 경매로 판매되기도 하고, 도면도 살 수 있고, 옛 버전을 모사해서 새로 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엔 전혀 없었으니까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피아노 관련 기술을 배워 조율사로 나섰던 그는 음악학·음악사를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다. 스스로를 ‘테크니션’이라 부르는 서씨는 자신이 음악 전문가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원전피아노를 매일같이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 고음악에 대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콘서트에서도 전문적인 음악학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시대에 이 작곡가가 어떻게 곡을 만들었는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듣는 힘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악기, 똑같은 연주자 넘치는 요즘, ‘왜 이걸 다르게 들리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서씨는 장차 고악기부터 현대의 모던 피아노까지 시대별 구조적 변천사를 한 데 모든 우리나라 유일의 피아노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고악기 연주를 들으며 고음악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이번 공연은 오는 20일 ‘고음악과 성악’을 주제로 진행된다. 서씨의 해설과 함께 피아니스트 최현영의 안드레아스 슈타인 연주와 바로크테너 박승희의 협연이 펼쳐진다. 27일에는 ‘고음악의 역사 II’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석 무료. 선착순 100명. 문의 062-670-7942.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2일 일곡도서관서 ‘노년을 위한 명사초청’ 강연

29일엔 북구 장애인재활센터

노년을 위한 명사초청 강연이 22일 광주 북구 일곡도서관과 29일 북구 장애인재활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명사초청강연’은 노년층의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2일 오후 2시 일곡도서관 강당에서 열리는 강연에서는 방송인 김병조(사진)가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행복한 삶’을 주제로 강연한다. 명심보감에 담긴 옛 성현의 말씀을 재미난 입담으로 재해석해 행복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예정이다. 강연을 맡은 방송인 김병조는 TV방송매체 프로그램 진행자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며 현재 조선대학교 초빙교수와 평생대학원 명예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강연과 함께 가수 김원중의 축하공연도 함께해 5060 세대의 힐링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강연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북구 장애인재활센터 대강당에서 김영식 남부대 교수가 ‘웃음으로 소통하라’라는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웃음 소통법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비법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웃음인성교육개발센터장으로 병원, TV방송매체, 공공기관에서 웃음치료, 웃음전도사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410-689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광주학’ 도서 발간 저자 공모

“광주학 저자를 찾습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광주학 도서 발간을 위한 역량 있는 저자를 찾기 위해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학 저자’ 사업 방향은 갑오경장 이후 광주의 근·현대를 시공간 범주로 하고, 인문·예술·사회·과학 및 생활사 전반이나 주요 인물, 공간, 사건 등을 범주로 한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1분야 ‘광주학 총서’ 부문과 2분야 ‘광주 모노그래프’ 부문이다. 먼저 ▲1분야 ‘광주학 총서’는 광주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나 올해 안에 단행본 발간이 가능한 예비저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 또는 공동저자로 신청 가능하며 원

고 1종만을 선정한다.

▲2분야 ‘광주 모노그래프’는 이미 발표된 논문을 교양서로 개편, 완간하면 된다. 2분야 심사는 원고 기획이 대중성과 참신함을 갖추었는지 등을 판단해 최대 2명만을 선정한다.

저자 지원금은 1분야 1000만원 이내, 2분야 총 600만원(1인 300만원 범위) 이내며 출판계약은 올 10월까지 원고가 마무리되면 문화재단이 법령에 따라 추진한다. 또한 12월에는 광주학 도서 발간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지원방법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오는 31일까지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43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등산생태탐방원서 18일 ‘풍류달빛공연’

‘한국음악양상별 짚·꾼’ 등 출연

매월 보름달 가까운 토요일에 열리는 공연 ‘풍류달빛공연’이 오는 18일 오후 7시 북구 무등산생태탐방원에서 2번째 공연을 갖는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 광주 MBC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국악인 김나니가 사회를 맡고, ‘한국음악양상별 짚·꾼’ ‘우리소리 바라지’가 출연한다. ‘한국음악양상별 짚·꾼’은 ‘서도산타령’ 중 ‘뒷산타령’ ‘경발림’ 등의 민요,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신고산타령’, ‘궁조명기’, ‘뱃노래’, ‘자진벚노래’ 등 메나리, ‘아리랑’, ‘밀양아리랑’, ‘온성아리

랑’, ‘진도아리랑’ 등을 무대에서 선보인다. 또 ‘우리소리 바라지’는 어머니들의 기원과 전통 비나리 노랫말을 활용해 남도소리로 짚 ‘비손’, 생생함 넘치는 네 고수의 북가락 이란 뜻을 담은 ‘생!사교락(生!四鼓鼓樂)’,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타악곡 ‘무취타(巫吹打)’ 등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한국음악양상별 짚·꾼’은 2018 제37회 대한민국 국악제 ‘대감놀이’, 2018 전통예술 실험무대 ‘판’ 등에 참여했으며 ‘우리소리 바라지’는 아시아·유럽 공연 및 서울아트마켓(PAMS) 등에서 활동했다. 전석 무료. 문의 062-232-2152.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국음악양상별 짚·꾼

한림문학재단, 상무역서 어린이 문학잔치

18~22일 시화전·시낭송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한림문학재단에서 어린이를 위한 문학잔치를 18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 서구 상무역에서 연다.

이번 어린이문학잔치는 시화전과 시낭송회로 나뉘어 열리며 시화전은 광주 시내 초등학교들이 출품한 300여 편 중 44편을 선별해 전시한다. 시화전과 함께 열리는 시낭송회에는 12명 어린이가 참여해 작품을 낭송할 예정이다. 전시를 마친 작품은 참여 학생들의 소속학교로 보내 교내에서 자체 전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관식과 시낭송회는 18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이번 시화전과 시낭송회는 광주지역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행사로, 어린이 시각으로 표현된 시화작품을 전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함께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공감하고 추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를 주최한 한림문학재단 박형철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 한국문학을 이끌어갈 문학 꿈나무들을 발굴하고, 게임과 학원수업으로 바쁜 어린이들이 잠시나마 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 동심의 회복은 물론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10-3627-181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

4주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속속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시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